

“버스 자주 다니고...절집 덕 많이 보고 삽니다”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② 도솔산 선운사



선운사 경내.



삼인리 석상마을 입구.



도솔암 마애불



선운사 오르는 길은 사하촌 주민들이 농산물을 파는 생계현장이다. 왼네는 삼인리 이종길 이장님.

시절 인연에 맞추어 조화롭게 변해가는 도솔산 자락에 포근히 안겨있는 선운사는 조계종 24교구 본사로 신라 진흥왕이 창건했다. 진흥왕이 왕위를 버린 첫날밤에 진흥굴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미륵 삼존불이 바위를 가르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기이하다 여긴 진흥왕은 중애사를 창건하였는데 이것이 선운사 불사의 시초라고 한다. 한때는 승려 3천여 명을 거느린 대찰이었다. 금동 보살 좌상, 도솔암의 지장보살 좌상, 참담암 대웅전 등 보물이 있어 학생들의 수학 여행 지로도 유명하였다.

선운사 주변의 동백 나무숲은 노랫말로 불리어져 봄철에 꼭 들르고 싶은 곳이 되었다. 매년 4월이면 붉고 탐스러운 동백꽃을 보러오는 사람들로 산골 마을은 만원이다. 500년 된 동백 나무숲은 선운사의 자랑거리로 관광자원이 되었지만, 처음 동백나무를 심게 된 배경은 다른데 있다고 한다. 식량이 부족하여 스님들이 탁발을 다니며 시주를 구하던 시절, 동백기름은 사찰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동백기름으로 여물을 밝히기도 하고, 불불교한 수단으로 돈보 다 가지 있는 것이었다.

도솔산 자락은 여름철 다시 한 번 빨간빛으로 물이 든다. 초입부터 도솔암까지 상사화 군락지가 형성되어 9월까지 감상할 수가 있다. 상사화는 모습만큼이나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다. 옛날 한 여인이 선운사에 불공드리러 왔다가 스님에게 연모의 정을 느껴 그만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단다.

500여년 된 동백 선운사의 자랑 기름 짜 절 살림에 보태려고 심어 절·삼인리 주민 식구처럼 교류 생태계 숲 개발사업 주민 '걱정'

그 후 여인의 무덤가에서 못다 이룬 사랑처럼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상사화다. 석상마을에서 상사화처럼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 여고 시절 선운사로 수학여행을 왔다가 어느 스님의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고 했다. 불가의 사랑과 사랑에 빠진 고명팔을 아버지는 혹독한 매질을 해대며 말리셨단다. 그러나 인연의 끈은 아무도 자를 수 없는 것인지만, 그녀는 스님의 아들 셋을 낳고 혼자서 길렀다. 애절함으로 보낸 젊은 날을 회상하며 낯선 나그네 앞에서 눈물 비람을 했다. 한 때 비구니로 살며 청화 스님께 계를 받았다는 그녀는 이제 홀로 되어 삼인리 절집 아랫마을에서 깊은 도량처럼 살고 있다.

6대째 도솔산 자락 삼인리에서 살고 있는 이종길 이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어릴 적 절집에서 놀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앞 뒤로 산자락에 감춰있는 마을에서 유일한 놀이터는 도시 사람들이 드나드는 절집

이었지요. 배를 주리고 살던 시절이라 배 고프면 공양 시간에 찾아가서 밥을 참 많이 얻어먹었구만요. 자연스럽게 절집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았지요. 산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다가도 저녁 예쁜 시간을 알리는 범종 소리를 들으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소풍도 선운사로 가곤 했는데, 뒤쪽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며 우리 집 등에서 숨바꼭질하듯 했었지요. 사월 초파일이면 연등을 달아주고 누룽지를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못할 일은 절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버리는 담배꽂이를 주워서 피우는 재미로 절집마당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절 아랫 동네 마을이라서 그런지 승려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사촌형님도 스님이 되었고 친구도 승려가 되었는데 지금은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합니다. 이곳은 워낙 외진 곳이라 옛날에는 버스가 동구밖까지 하루에 세 차례 운행되었어요. 삼인리 사람들 절집 덕 많이 보고 삽니다. 관광객 때문에 손님이 없어도 버스가 흥덕, 고창, 해리에서 자주 들어와요."

마을의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절집에서 돈을 조금씩 내어 놓기도 한다는 이장님 말에 절집과 사하촌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인연의 고리로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절에서 음악회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도시 문화를 보급하기도 한다.

이장님은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말했다. 선운사 지역을 생태계 숲으로 개발하려고 군에서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 공시 지가로 땅을 판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개발해서 분양하는 상가에 들어가 기에는 주민들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집을 개량해서 펜션이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온 마을 360 집집마다 수저 수까지 세고 있는 이장님은 마을 지키기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선운사로 통하는 길목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다. 녹차 가루, 솔잎 가루, 은행, 호박 씨 등 주변에서 수확한 먹을거리로 좌판을 벌이고 있었다. 절집 아랫마을이 고창이라는 김영애 아주머니가 짧은 겨울 햇살을 맞으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초중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큰스님이 동네 아이들을 밤마다 절집으로 불러들여 한글도 가르쳐 주고 예절도 엄하게 가르쳐 주셨다며 고마운 마음을 털어 놓았다.

동네 소녀들은 봄이든 뒷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산나물을 뜯어다 절집에다 팔아 용돈을 얻어 쓰기도 했다. 옛날에는 스님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셔서 친분이 도타왔는데 지금은 얼굴 익히기가 무섭게 떠나 버린다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탓했다.

도솔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붙잡으려 도솔암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솔암 낙조대에 올라서서 일몰을 감상하려는 생각은 욕심이었다. 서해로 빠져버린 해를 마애불의 얼굴에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도솔천 입구에서 본 삼인리 송악과 마애불이 지워지는 듯하였고, 은어가 산다는 도솔천 물에 발을 담그고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송악은 법구경같은 가르침을 내게 주었다.

산나물을 뜯어다 절집에다 팔아 용돈을 얻어 쓰기도 했다. 옛날에는 스님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셔서 친분이 도타왔는데 지금은 얼굴 익히기가 무섭게 떠나 버린다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탓했다.

도솔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붙잡으려 도솔암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솔암 낙조대에 올라서서 일몰을 감상하려는 생각은 욕심이었다. 서해로 빠져버린 해를 마애불의 얼굴에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도솔천 입구에서 본 삼인리 송악과 마애불이 지워지는 듯하였고, 은어가 산다는 도솔천 물에 발을 담그고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송악은 법구경같은 가르침을 내게 주었다.

선운사는 김삼미(수필가·본지 객원기자)

녹차처럼 푸른 꿈 일구는 유용 스님

녹차 체험학습장으로 만들 것

고 있다. 목적달성을 선운사에서 임대해 차밭을 이루었다.

산자락에 야생 녹차나무 2만평 재배 녹차나무 2만평 정도를 가꾸고 있는데 차밭을 이루는 날도 빛도 많이 잦다고 한다. 정토 세계에서 수행을 쌓는 것만큼이나 소중하게 차밭을 가꾸는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도솔산을 생태계 숲으로 개발하려는 교황군의 생각을 스님이 해안으로 미리 읽은 것 아닌가 싶다. 생태계 숲에는 체험 학습장이 필요한데 녹차 밭을 체험 공간으로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녹차를 수확해서 얻어진 수익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는 짓은 질문에 좋은 일에도 사용하고 노후에 용돈이나 해를 요양이라고 했다. 땅을 2년 동안 사용하고 그 후에는 녹차나무까지 선운사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녹차나무는 해풍을 맞고 자라야 차 맛이 좋는데 서해 바다에서 넘어오는 해풍이 도솔산 자락으로 갇혀 차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 일찍 심은 나무에서 수확한 차는 선운사에도 주고 아는 스님들한테도 보낸다고 했다. 녹차는 4월에 들는 새순부터 따기 시작한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사는 일이 많은데 이제는 모두 노인들만 살고 있어서 아쉽다고 했다. 차밭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위해 퇴비를 만들 요양으로 이랑 사이에 호미를 심어 놓았다는 스님은 녹차 나무를 자식만큼이나 사랑하는 가보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에 찾아오며 향이 진한 녹차 한잔을 권했다.

선운사 석상마을에서 오르는 길은 녹차 향으로 가득하다. 구부러진 산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녹차 밭이 아늑막한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단정하게 머리를 지른 녹차 나무만큼이나 반듯해 보이는 유용 스님은 선운사에서 생활을 하다 나와서 차밭을 가꾸



www.njutcm.edu.cn

UN에서 지정한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07년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선 80명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명절3.5이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박 사 과 정	3년	2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어학원 및 유학생 전용 기숙사, 식당 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월 28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co.kr

초기유학생모집 초·중·고1,2학년(남경국제학교)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본과 합격자—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홍정(단국대)
▲이정화(연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명수(영지대)
▲박영문(영지대)	▲강재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전고)
▲정재형(성문고)	▲박은수(대덕고)	▲박상준(규정고)
▲이상춘(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정(휘문고)	▲김준호(배운고)	▲김정우(현대고)

—석사과정 합격자—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